타고나는 외계어 습득 유전자

(역대상 8:1~40)

1.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2.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3.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4.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5.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6.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7.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웃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오늘 말씀 중심으로 <타고나는 외계어 습득 유전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타고나는 외계어 습득 유전자'
오늘 제목의 외계어(外界語)란 UFO(미확인비행물체)를 타고 오는 외계인들이 쓰는 언어인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글을 쓸 때에 ㅋㅋ나 ㅎㅎ처럼 한국어를 변칙적으로 표기함을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목의 외계어는 문자 그대로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외국어가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외국어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나 방위조약 같은 것들을 체결하기도 하고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합하거나 적대시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이권을 가치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계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이 세계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치'는 나를 웃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 세계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선택하는 자들의 언어가 외계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행7: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외계어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 들을 때에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언어를 들을 때에 설령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언젠가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대단하고 훌륭한 분인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사용한 언어를 구성하는 가치 기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병자로 여기거나 혹은 훌륭하다고 치켜세웁니다. 그러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또한 초대 예루살렘교회에서 유무상통이 일어났는데 이 자체가 외계어로 이루어진 생각입니다. 그 말에서 힌트를 얻은 자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인간의 욕망에 먹혀버린 당원들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세계를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자기 주머니를 벌리고 쓸 만큼 가져가라고 하는 일이 이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개념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대로 진전된다면 우리도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바로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세상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세상을 살 때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별도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고 완전히 다른 언어와 가치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 생활화라는 말 자체가 외계어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의 모든 사건과 모든 대상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살까 말까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는 모든 가치 있는 대상들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생활화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해도 납득도 가지 않는 외계어를 수용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수용한 십자가 생활화는 대부분 하루아침에 칼로 무 자르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 외계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타고난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라는 외계어에 대한 소질을 타고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 자손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포개어 질 수 있는 자는 외계어 습득의 유전자가 생래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역대기에서 과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질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 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속했던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까지

의 여섯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전장에 걸쳐서 다시 나옵니다.

1~5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직계자손들을 거명하고, 6~28절까지는 에훗에 속한 자손들이 이야기 됩니다. 1대 사사였던 유다지파의 옷니엘을 이은 베냐민 지파의 에훗은 제2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훗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하라임 자손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하라임은 어느 계보에 속한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9~40절까지는 사울 왕에 이르는 족보와 아들 요나단의 후손들이 포로기 직전까지 즉 망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이 나옵니다.

이들 베냐민 지파에는 제2대 사사를 지낸 에훗이라는 걸출한 영웅도 있고 통일왕국의 제1대 왕인 사울 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족보가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통일왕국의 이야기를 위해서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는 포로귀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옴으로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통일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BC450년경은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5절까지 베냐민의 직계 후손들을 언급한 것은 이 족보의 내용이 베냐민 지파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6~7절까지는 에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에훗이 2대 사사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말하는데 포로로 잡혀 갈 때의 장소와 잡혀 간 장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성읍이 나오는데 이들이 게바에서 마나핫으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게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고 마나핫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족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온 사하라임은 에훗과 연결 된 사람도 아니고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에스라 혼자 가지고 있던 자료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석서들은 베냐민 지파는 에훗을 거쳐서 사울로 이어지는 족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8~28절까지는 사하라임 족속을 말하는데 베냐민 족보에 속한 자는 틀림없겠으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이어서 29절에 사울로 이어지는 직계 조상들이 나오고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하라임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모압 땅에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본처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11~28절까지 나오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기브온 성읍을 창시한 자들이 사울 왕의 직계 조상임을 언급하며 그들도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합니다. 족보 전체를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두 번의 말로서 둘러싸는 에스라의 족보에 대한 의도를 알기에는 정말로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포로귀환 때에 북 왕국에 속한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북 왕국이 세워진 후에 여로보암이 벧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자 그것에 반발하고 경건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남하해서 남 유다 지역에 살게 되었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탁월하게 유다 지파에 속한 포로들과 합세하여 폐허가 된 예루살렘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에스라는 다가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완성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합력하여 새로운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들이 합세한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만드실 또 다른 측면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외계어의 습득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자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기의 족보를 통해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흥미진진한 측면들을 보아왔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집중되느라 선택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BC732년에 강제이주정책으로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자손들까지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찾아질 것입니다. 또한 레위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관계가 선민들의 평생의 직업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은혜 전체인 하나님 자신을 독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십자가와 모든 선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선민으로서 찾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처럼 십자가를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관한 모든 일들은 받아들임으로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오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장손들을 중심으로 순리적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라하임의 이야기가 나오며 그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는 것으로 족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날마다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쪽의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들이 얼마나 강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

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은 곧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기에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간절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는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부터 50년 만에 가나안에 진입해서 천 년대에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기 까지 거의 5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망한 것이 BC586년이므로 천년 세월 동안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속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근방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땅 게바에서 유다 지역인 마나핫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이 유다 땅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하임이 낳은 자손들 중에는 모압 땅에서 얻은 아내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있었으며, 본처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대비시킵니다.
지금 유다 자손이 포로로 귀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는 징검다리를 놓으려할 때에 베냐민이 그들과 합세하는데 베냐민도 유다 자손과 함께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라는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살며 족보상의 유전자를 가지게 된 자들이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음을 비유를 들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읍의 랜드 마크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천년을 살았던 기억이 있는 자들이 결국 포로귀환시대에 유다 지파와 함께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며 그 내력을 추적한 것이고 사하라임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직계 조상들을 얘기할 때도 기브온에서 출발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부터 고작 9.6km떨어진 성읍이고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것은 성전 때문이고 성전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천년 동안 준비된 유전자를 가진 자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에스라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비유로 삼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천년 동안 무르익은 유전자를 가진 자들만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생활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죄사함의 사건이라는 얘기는 외계어 습득 유전자가 없어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죄사함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유전자가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이권만 추구할 수 있는 성향만 있으면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죄를 사해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다 발

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 난 연예인이나 사회의 공인들이나 대기업의 맹주들이 자살하고 나면 다 장로이고 다 성도라고 합니다. 요즘 시끄러운 최순실조차도 교인이라고 합니다. 소망교회를 비롯하여 강남에 있는 교회는 다 다녀봤다고 합니다. 다 십자가의 죄사함의 고백을 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은 외계어 습득 유전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6: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하십니다.

에스라는 포로귀환 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합세한 이유를 찾으며 그들에게 그러한 유전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의미의 완성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은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포로로 잡혀있더라도 십자가를 그리워하는 자들만이 십자가 생활화가 가능합니다.

당장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활화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그 말씀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된다면 베냐민 지파와 같은 외계어의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득도 되지 않고 수긍도 되지 않으면 유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외계어입니다. ‘세상가치에 대해서 죽자’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준비시킨 자들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에스라가 족보를 통해 말한 복음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내 안에서 원활하게 활성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